하수처리장·상무소각장·위생처리장 등 광주 환경기초시설

"생태숲·자연학습장 탈바꿈"

市, 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17명 연구단 구성

하수처리장과 상무소각장, 음식물사료화시설 등 광주지역 주요 환경기초시설들이 생태숲 공원과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온 6개 환경기초시설과 그 주변지역(90만㎡)을 생태녹지 공간으로 조성,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17명으로 연구단(T/F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8월까지 생태공원, 하수·위생, 자원순환, 환경교육 홍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내 환경기초시설의 생태숲 공원 조성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상무지구 주변의 제1하수처리장과 광산구 본덕지구의 제2하수처리장은 광주천과 영산강 주변의 수목군락지를 활용해 철새 도래지 등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들과 법정 분쟁이 마무리된 서구 상무소각장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온실 형태의 식물생태학습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인 서구 위생처리장(분뇨처리장)과 조만간 이전 계획이 확정될 서구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이전 뒤 남은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구의 광역위생매립장에는 풀과 나무를 심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키로 했다.

시는 시설별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현주 광주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특색 있는 생태숲과 체험학습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오락, 교육이 가능한 참살이(Wellbeing)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상무지구내 시청앞 광장 및 미관광장 생태숲과 연계해 생태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청소년박람회' 자원봉사단 발대식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5월29일부터 나흘간 광주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식이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서 열렸다. 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중·고·대학생 대표들이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선서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U대회 광주 유치 서명 100만명 돌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에 참가한 시민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U대회 유치 기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온 결과 35일만인 23일 102만명(관내 85만명, 관외 17만명)을 기록,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이 기간 전국 16개 시·도에 U대회 관련 홍보와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와 목포, 여수, 순천, 전주 등 주변 주요 도시에서는 현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각 시·도 호남향우회를 비롯해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도 학교, 기업 등을 방문해 서명운동을 도왔다.

시는 이 같은 결과가 5월1일 광주를 방문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에게 시민들의 유치 열망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 하계U대회 개최 도시는 5월1일부터 18일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경쟁 도시인 스페인 비고와 러시아 카잔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쳐 5월31일 벨기에 브뤼셀의 FISU 본부에서 집행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 디자인산업 토대 튼튼"

광주 찾은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 獨대사

노르베르트 바스(Norbert Baas·61) 주한 독일대사가 지난 21일 광주를 방문했다.

부임 18개월 만에 처음 광주를 찾은 바스 대사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적인 사회시스템에 경의를 표시했다. 큰 키에 소탈한 모습의 바스 대사는 특히,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동·서독의 통일을 경험한 그는 또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광주일보에서 진행된 바스 대사와의 일문일답.

-광주방문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렇다. 평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 방문은 광주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광주와 독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현주소를 평가해달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과 효율적인 개혁, 그리고 옛것과 새것이 조화된 흥미로운 문화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 영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강력한 원천이 되고 있다. 또 급작스러운 변화를 부드럽고 마찰 없이 다뤄나가는 한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한국이 이뤄낸 민주화는 전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의 새 대통령과 정부에 조언할 것이 있다면.

▲세계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유지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 정부와 대통령이 앞으로 세계 평화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독일은 통일을 경험했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달라.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도 적지 않다. 남북이 정부차원의 경제적 협력과 관광을 통해 점점 더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정부가 남한과의 접촉을 꺼린다는 점은 분명 독일과는 다른 상황이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동독주민이 서독의 TV를 시청하거나, 서독의 친지를 방문할 수 있었다.

-남북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결국엔 통일이 이뤄질 것이다. 6자회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손쉽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북한도 통일을 앞두고 경제적 측면에서 대비를 해야하며, 정치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北 경제적 지원이 통일 지름길

재생에너지 한-독 협력 필요

-광주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을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분야 선두국가인 독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잠재 시장을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커다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이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독일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기업이 협력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광주의 디자인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은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디자인은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심미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 디자인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과 시설이 결합한다면 전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같은 한국의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비엔날레 홍보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